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 ‘한국월드비전’은 지난 9월 30일(월)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신학교 교수, 언론인, 현직 목회자, 기독교 문화 전문가, 조사통계 전문가 등 한국교회를 다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로 TFT를 구성, 기획, 집필한 것으로 2022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처음 펴낸 후 이번에 세 번째로 선보이게 되었다.

선정된 10개 주제에 대해 각 저자는 담임목사, 기독교인, 해외선교사, 일반 국민, 고령교인, 싱글 크리스천 등 6,700명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조사를 바탕으로 트렌드 현상과 대응 전략에 대해 글을 전개하였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10개의 주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는 특집으로 구성하였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10대 키워드

1. 유반젤리즘 (유튜브 신앙생활)
2. 멘탈 케어 커뮤니티 (정신건강)
3. 포텐셜 레이어티 (평신도 사역)
4. 오소프락시 (신앙 양극화)
5. 패밀리 크리스천 (가족 종교화)
6. 스피리추얼 Z세대 (영적 Z세대)
7. 싱글 프렌들리 처치 (싱글 사역)
8. 시니어 미니스트리 (고령교인 사역)
9. 솔트리스 처치 (교회의 세속화)
10.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해외 선교 트렌드)

※ 대상자별 조사개요

1. 담임목사 : 전국 담임목사 1,000명, 편의추출 후 교회 규모별 가중치 적용, 온라인 조사, 2024.05.17.~06.03.
2. 기독교인 : 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 2,000명, 기독교인 기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온라인 조사, 2024.05.14.~06.03.
3. 해외선교사 : 한국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 600명, 편의 추출 후 KWMA가 발간한 '2022 한국선교현황 보고'의 선교사 연령 분포에 따라 가중치 적용, 온라인 조사, 2024.05.17.~05.29.
4. 일반국민 :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온라인 조사, 2024.05.20.~05.27.
5. 고령교인 : 아드폰테스/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한국기독교시니어사역 연합 참여 45개 교회의 만 65세 이상 1,500명, 편의 추출 후 50표본 이상 교회의 응답 수를 50명으로 고정 가중치 부여, 모바일 조사와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4.05.01.~06.12.
6. 싱글 크리스천 : 전국 만 30~59세 기독교인 600명, 기독교인 기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온라인 조사, 2024.05.17.~05.19.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유반젤리즘(You-vangelism): 유튜브 신앙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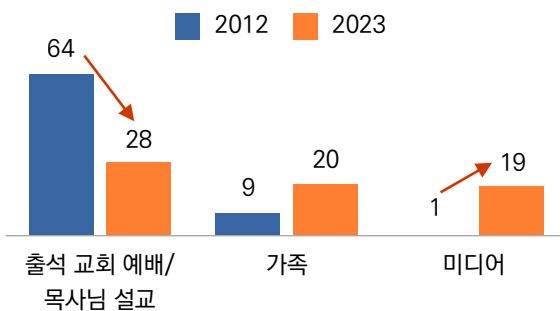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유튜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유튜브는 기독교인들의 일상에서도 익숙한 콘텐츠가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유튜브로 CCM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 이른바 유튜브 에반젤리즘(YouTube Evangelism), 즉 유반젤리즘(You-vangelism)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유반젤리즘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반젤리즘 시대에도 효과적인 목회가 가능할까?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기능과 사역은 무엇인가? 유반젤리즘 시대에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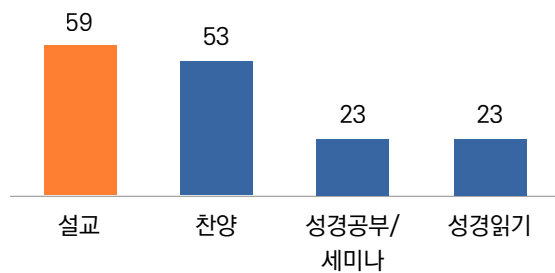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 미디어 영향 급증!

- 최근 10년 사이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의 신앙 성장 도움 정도는 절반 이상(64%→28%) 감소한 반면, '미디어'는 크게 증가했다.(1%→19%) 이는 향후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에 미디어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게 한다.
- 가장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의 이용률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넘버즈 241호), 기독교인이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로는 '설교(59%)'와 '찬양(53%)'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성경공부(23%)', '성경읽기(23%)' 순으로 나타나 신앙생활의 보완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 받은 것* (기독교인, 상위 3위, %)



[그림] 자주 이용하는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 (기독교 유튜브 시청하는 교회 출석 기독교인, 1+2순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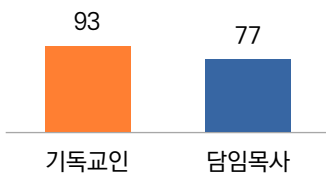


*출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 ~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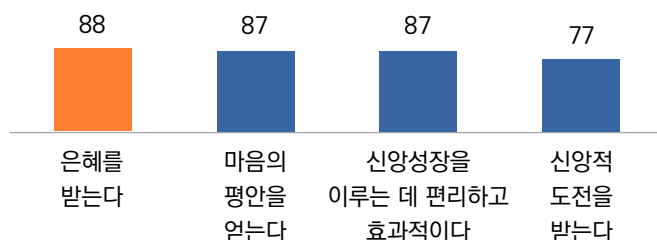
유튜브, 신앙생활 도움 된다, 기독교인 93%, 목회자 77%!

- 기독교인의 대다수(93%)는 기독교 유튜브가 신앙생활에 도움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목회자 10명 중 8명 정도(77%)도 이에 동의하고 있었다.
- 또한 기독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성도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은혜를 받는다(88%)'에 동의했으며 '신앙적 도전을 받는다'도 77%로 나타나 신앙생활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림] 기독교 유튜브 신앙생활 '도움 된다' 인식* (기독교 유튜브 시청 교인, %)



[그림] 기독교 유튜브를 통해 얻은 유익 (기독교 유튜브 시청 교인,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02

멘탈 케어 커뮤니티(Mental Care Community): 정신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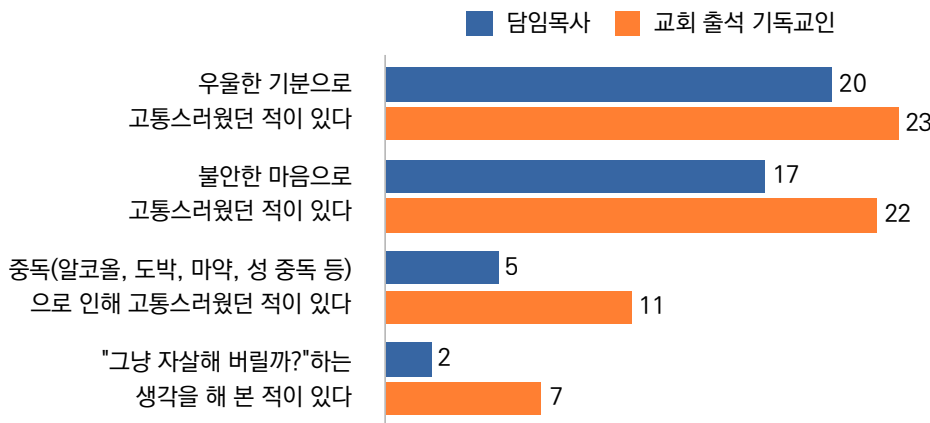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사회적 불평등, 노동시장의 급변으로 인한 일자리의 불안정,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과 부조리, 돈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현대 한국인에게 수많은 역기능적 결과를 초래한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그 대표적인 증상이다.

정신건강 문제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 교회 출석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해하고 있다.

교회 내 우울/불안 겪는 성도, 5명 중 1명 이상!

- 최근 2주 기준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우울'하거나 '불안'을 느끼는 성도는 5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났으며(우울 23%, 불안 22%), 목회자의 경우도 '우울' 20%, '불안' 17%로 적지 않았다. 교인의 경우 '중독으로 인한 고통 경험'은 11%, '자살 충동'이 7%로 나타나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그림]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 (최근 2주 기준,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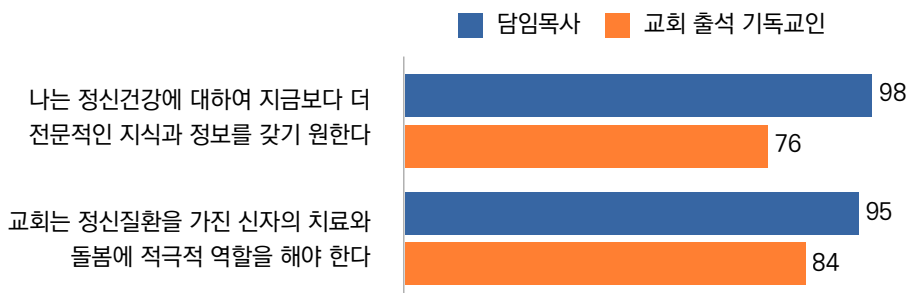


*4점 척도

교회 성도/담임목사 대다수, 교회의 정신질환 성도 돌봄 역할에 대해 동의!

- 대다수의 담임목사는 정신건강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기 원하고 있었으며(98%), 정신질환을 가진 교인의 치료와 돌봄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95%)는 인식을 나타내 정신건강 문제가 교회에도 직면한 과제임을 시사했다.

[그림] 신앙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인식 ('매우+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03

포텐셜 레이어티(Potential Laity): 평신도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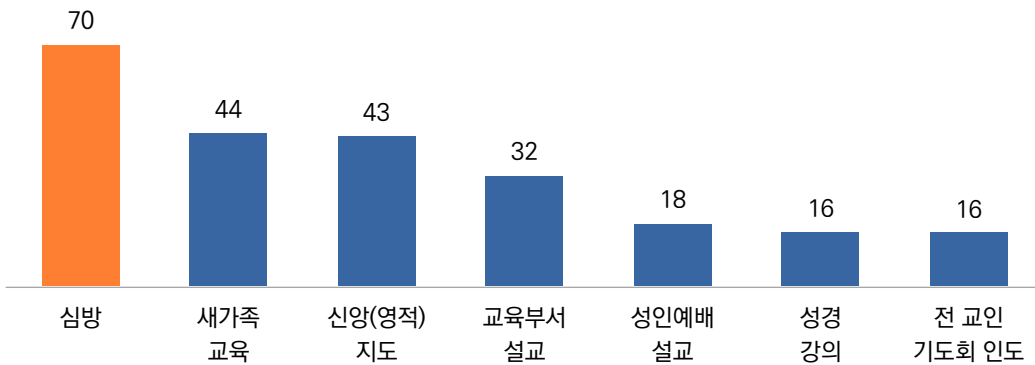
한국교회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과 신학교 지원자 감소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영성과 전문성을 가진 평신도를 활용한 사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침체와 위기는 평신도를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코로나19는 그 전환점이었다.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예배와 온라인 예배, 소그룹 활동이 빛을 발하면서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평신도에 대한 중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평신도가 성인예배 설교하는 교회 18%!

- 담임목사에게 시무교회에서 실제 평신도가 하고 있는 사역을 물은 결과, '심방'이 7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새가족 교육(44%)', '신앙 지도(43%)', '교육부서 설교(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회자의 주된 역할 중 하나인 '성인예배 설교'도 18%로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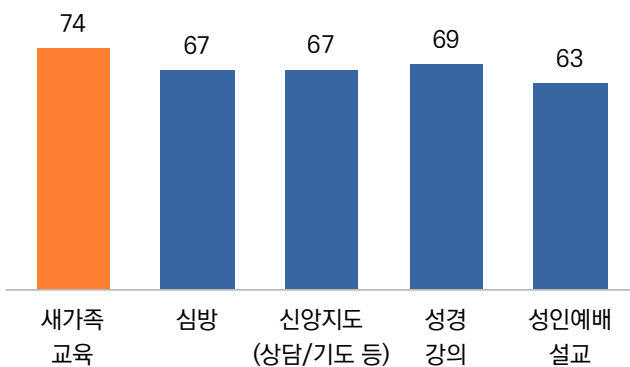
[그림] 실제 시무교회에서 평신도가 하고 있는 사역 (담임목사, 상위 7위, %)



목회자,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대체 '찬성한다'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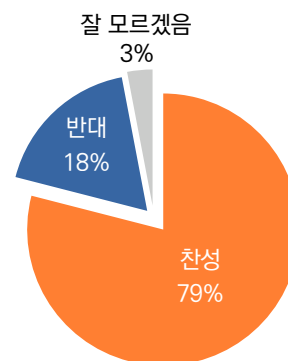
- 이러한 평신도 목회사역에 대해 목회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새가족 교육', '심방', '신앙지도', '설교', '강의' 등의 사역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인식이 60% 이상 나타났다. 또한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대체에 관해 담임목사의 대부분(79%)이 찬성해 평신도 사역이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림] 평신도 사역 평가 (담임목사, '별 문제 없다' 비율, %)



*4점 척도

[그림] 평신도의 교역자 역할 대체 인식* (담임목사)



04

오소프락시(Orthopraxy): 신앙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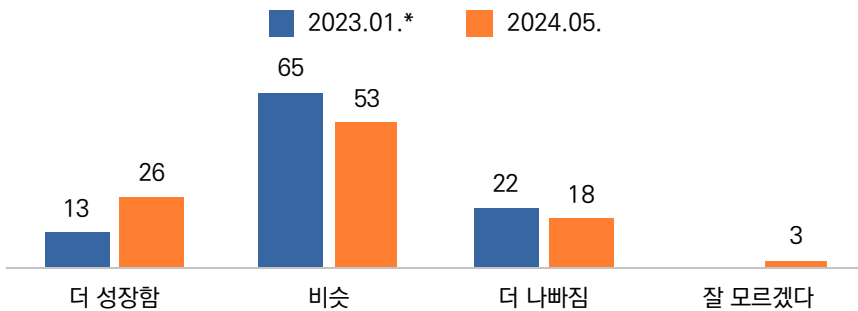
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심지어 교회의 양극화까지 오늘날 양극화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신앙의 양극화는 다른 양극화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 대부분 양극화는 부정적, 극단적 현상인데 반해 신앙 양극화는 부정적 차원을 내포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앙의 깊이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은 먹구름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기대하게 한다.

신앙 양극화 가운데 신앙 성장세 변화 두드러져!

-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인의 신앙수준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65%→53%), '더 성장함' 비율은 2배 증가했다.(13%→26%)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신앙수준 변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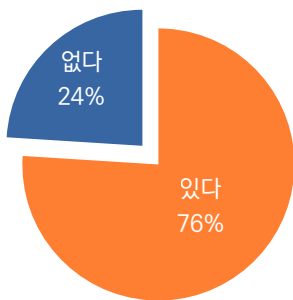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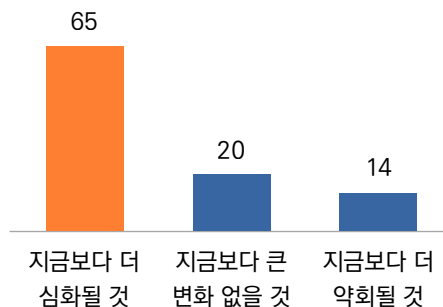
담임목사 3명 중 2명, '앞으로 신앙 양극화 더 심해질 것!'

- 이러한 성도의 신앙 양극화는 담임목사도 느끼고 있었는데, 담임목사 4명 중 3명(76%)은 교회 내 신앙 양극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명 중 2명(65%)은 이러한 신앙 양극화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림] 교회 내 신앙 양극화 여부* (담임목사)



[그림] 향후 신앙 양극화 예측 (담임목사, %)



*4점 척도

05

패밀리 크리스천(Family Christian): 가족 종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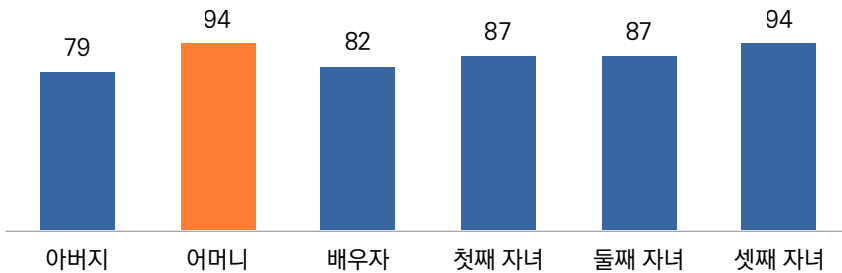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가족 종교화 현상이 뚜렷하다. 기독교의 가족 종교화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으나, 어려서부터 본인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의지로 갖게 된 신앙이 성인이 되어서는 오히려 약화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가족 종교화는 또 기독교의 확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비기독교인 가족 중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점 줄고 있는 것인데, 이런 현상이 심화되면 한국 기독교는 그들만의 종교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 가진 기독교인, 어머니 94%, 자녀 90% 안팎이 기독교인!

- 한국교회탐구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시절부터 교회에 다닌 60세 미만 기독교인의 경우 '아버지'가 기독교인인 경우가 79%, '어머니'가 기독교인인 경우가 94%로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 자녀들도 90% 안팎이 기독교인으로 나타나 신앙이 세대 간 계승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그림] 가족 구성원별 기독교인 여부 (각 가족 구성원이 있는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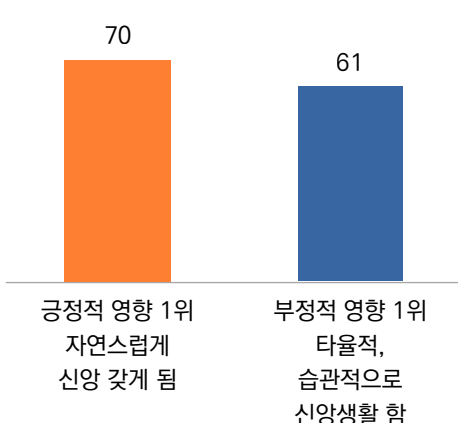


※출처: 한국 교회탐구센터, '기독교인의 가족 신앙에 대한 조사', 2023.08.27. (전국 만19세~59세 남녀 중 첫 교회 출석 시기가 초등학교 이전이며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07.28.~0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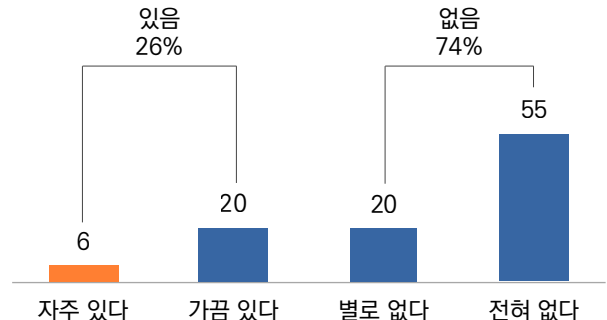
가족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인 4명 중 1명, '소외감 느낀다'!

-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으로는 '자연스럽게 신앙 갖게 됨(70%)'이 가장 높아 신앙의 부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긍정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으로는 '타율적,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함(61%)'이 가장 높아 한편으로 신앙 강요의 불편함이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또한 혼자 신앙생활하는 교인 4명 중 1명은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모님과 함께 한 신앙생활의 영향 (고등학교 이전 교회 출석자 중 부모님이 교인인 자, 1+2순위, %)



[그림] 혼자 신앙생활해서 느끼는 소외감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 %)



06

스피리추얼 Z세대(Spiritual Gen Z): 20대 청년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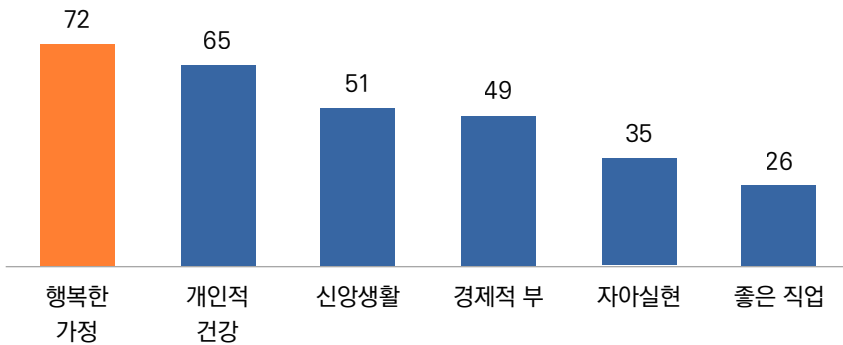
Z세대는 1995년 이후 출생한 소위 20대 청년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나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접하며 성장했다. Z세대는 대한민국 인구 전체의 13.8%를 차지하며 전세계 소비자의 40%를 구성한다.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

크리스천 Z세대는 신앙생활을 중시하며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신앙적인 자료에 접근하고 교회와 사회적 가치관을 조화시키려 한다. Z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과 관심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Z세대 크리스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돈’보다 ‘가정’!

- Z세대 크리스천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행복한 가정(72%)’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부(49%)’는 4위권으로 나타났다. 보통 젊은 세대가 경제적 조건을 최우선시하는 경향과 다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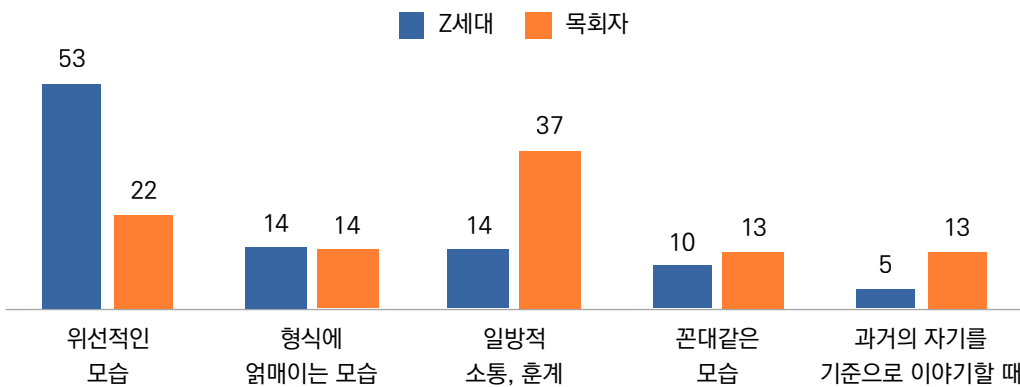
[그림]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19~29세 기독교인, 1+2순위, 상위 6위, %)



Z세대가 교회 목회자/어른에게 가장 실망했을 때, ‘어른들의 위선’!

- Z세대에게 교회 목회자/어른에게 실망한 모습이 무엇인지, 목회자에게는 Z세대를 대할 때 개선해야 할 모습을 동일한 보기로 물어보았다. Z세대는 ‘위선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목회자는 ‘일방적 소통, 훈계’를 가장 많이 선택해 큰 차이를 보였다. Z세대가 가진 기성세대의 인식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를 나타내는 결과이다.

[그림] Z세대가 교회 목회자/어른에게 실망한 모습 vs 목회자가 Z세대를 대할 때 개선해야 할 모습 (%)



07

싱글 프렌들리 처치(Single Friendly Church): 싱글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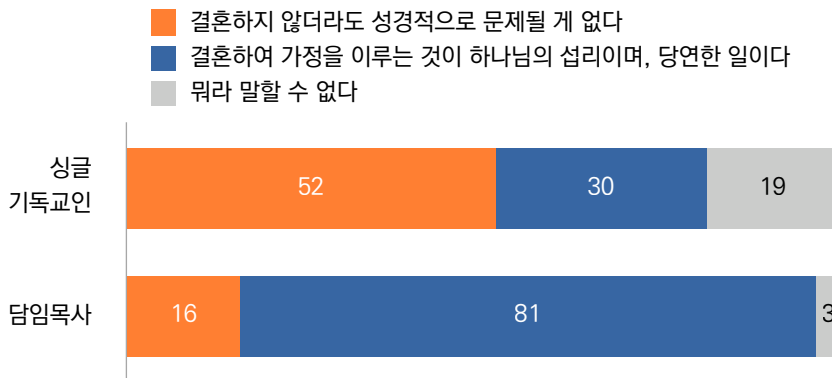
만혼, 비혼화로 미혼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회 내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삶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터놓고 대화할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목회자들도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낀다. 싱글들이 목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싱글라이프는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싱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여정 일부이다. 이에 따라 싱글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교회 분위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싱글 크리스천, '결혼하지 않아도 문제 될 게 없다' 52%

- 교회 내 싱글 기독교인과 담임목사에게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담임목사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81%)'에 동의한 반면, 싱글 기독교인은 30%만이 동의해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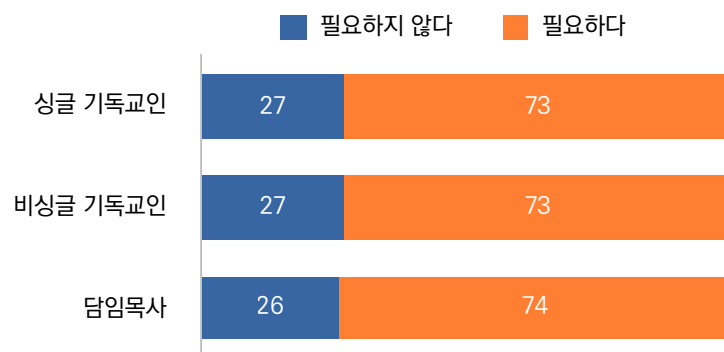
[그림] 성경적 기준 안에서 결혼 (%)



목회자/교인 4명 중 3명, '교회 싱글만의 공동체 필요하다'

- 중형 이상급 교회 교인과 담임목사에게 싱글 기독교인을 위한 예배/공동체의 필요성을 확인한 결과, 교인의 73%, 담임목사의 74%가 동의했다. 현재 싱글 공동체가 있는 교회가 극히 낮는데, 향후 싱글 공동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림] 교회 내 싱글 기독교인을 위한 예배(공동체) 필요성 인식*
(출석교회 교인 수 500명 이상 교회 출석 기독교인/담임목사, %)



*4점 척도

08

시니어 미니스트리(Senior Ministry): 고령교인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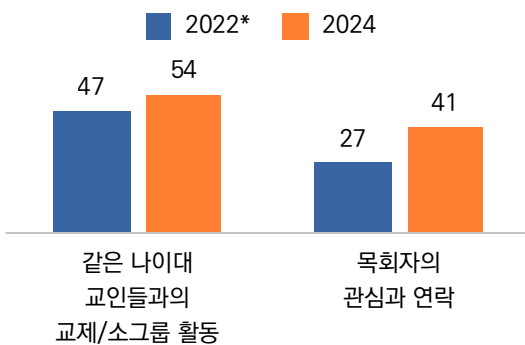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대안 패러다임으로 ‘고령 친화성’을 선택했다.

사회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고령 친화교회’(age-friendly churches)의 토대를 갖추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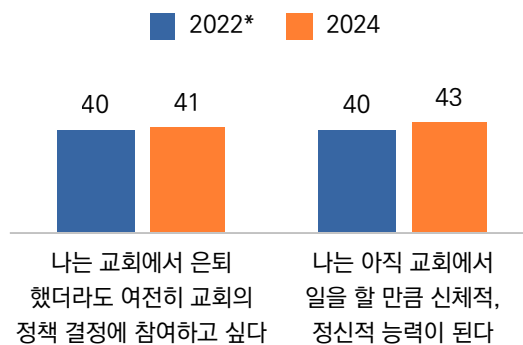
고령교인이 기대하는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2년 전 대비 크게 증가!

- 고령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소그룹 활동’이 절반 이상(54%)을 차지했으며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41%)’은 2년 전 조사 결과(2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직분 은퇴 후 교회 역할에 대해 은퇴 연령 교인의 41%가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다라도 여전히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림] 고령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 (65세 이상 교인, 1+2순위, %)



[그림] 직분 은퇴 후 교회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71세 이상 교인,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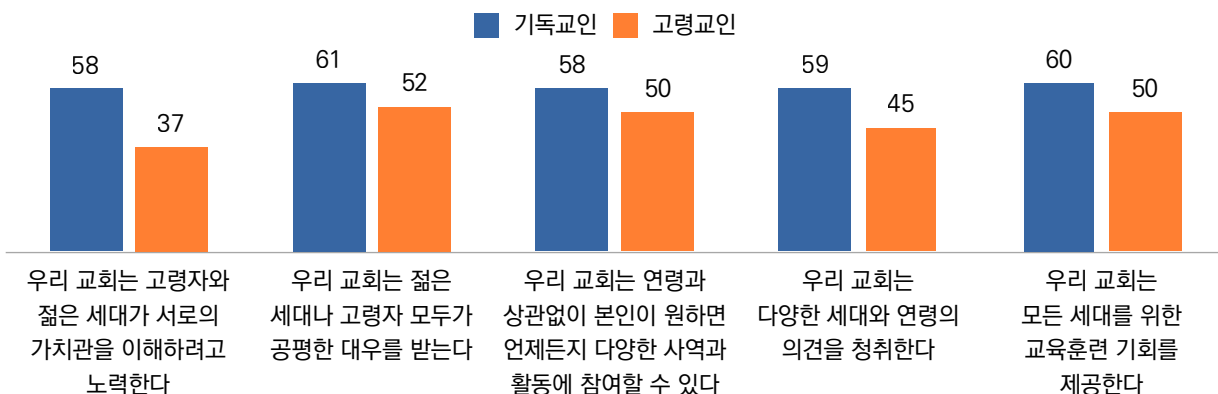


*출처: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만 65세 이상 교인 2,045명, 모바일 조사/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출석교회의 고령친화성, 당사자인 고령교인이 일반 교인보다 낮게 평가!

- 출석교회의 고령친화성에 관한 의지와 실태에 관해 동일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기독교인과 고령교인의 의견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고령교인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니어 목회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령교인들의 니즈에 맞춘 교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출석교회 고령친화성 평가(‘매우+약간 그렇다’비율*, %)



*5점 척도

09

솔트리스 처치(Saltless Church): 세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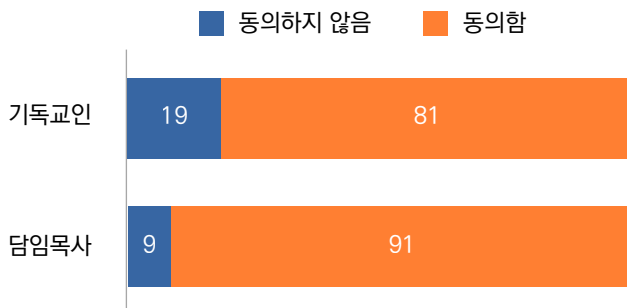
세속화란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세속화는 제도적 측면 외에도 개인적 측면이 존재한다. 즉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세속화란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본연의 비전을 상실해 가는 현상인 동시에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임목사 91%, 교인 81%, ‘한국교회 세속화되었다!’

-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인의 81%가 동의했는데, 담임목사 그보다 더 높은 91%가 이에 동의해 심각성을 증명했다.

[그림]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인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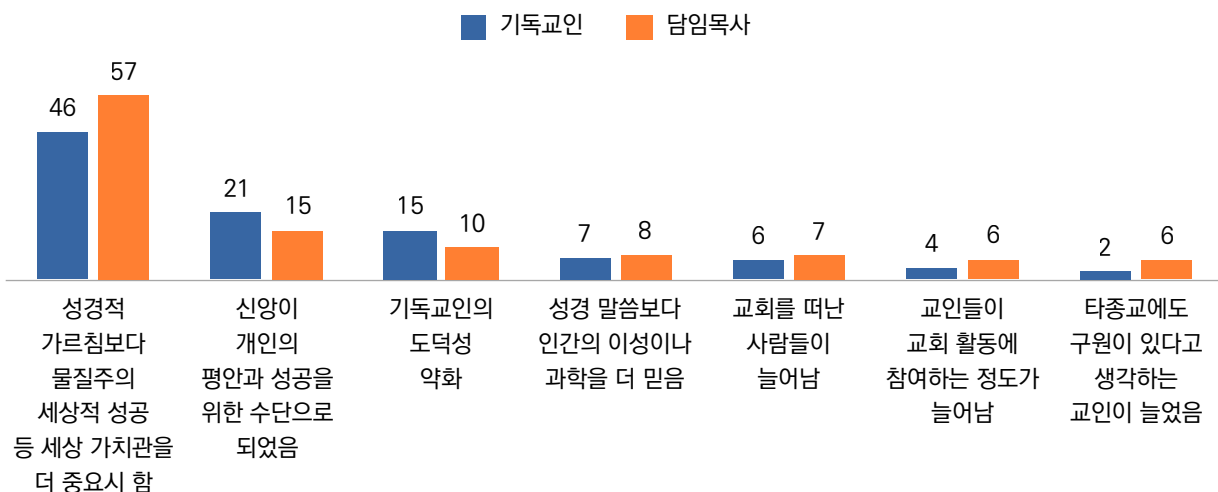


*4점 척도

세속화 이유, 성경적 가르침보다 세상적 가치관 더 중요시해서!

- 세속화 이유로는 담임목사와 교인 모두 ‘성경적 가르침보다 물질주의, 세상적 성공 등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시함’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신앙이 개인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되었음’이 그다음을 차지했다.

[그림]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동의한 이유 (교회 세속화에 동의한 자, 상위 7위, %)



10

미션 비욘드 트레이디션(Mission Beyond Tradition): 선교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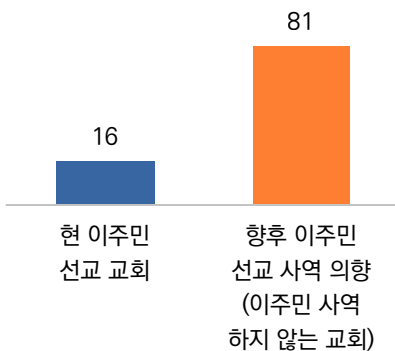
선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근 30년간 국제 사회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정도와 범위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선교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이동, 기술 발전 그리고 세계 기독교 시대 등의 다양한 영향,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변화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세계 선교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국교회였지만 지금은 변화와 선택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오늘의 환경을 이해하고, 마주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반응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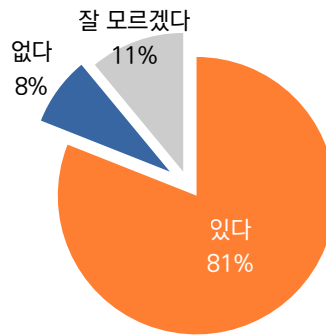
목회자, '향후 이주민 선교 할 의향 있다' 81%

-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로 인해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담임목사에게 현재 이주민 선교 여부를 물어본 결과 16%만이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현재 이주민 사역하지 않는 교회 중 향후 이주민 선교 사역 의향이 있는 교회의 비율은 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외선교사의 81%가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사역 전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이주민 선교 양상의 변화를 예상하게 했다.

[그림] 이주민 선교 교회 vs 향후 이주민 사역 의향 (담임목사, %)



[그림] 한국 귀국 후 이주민 사역 전환 의향* (해외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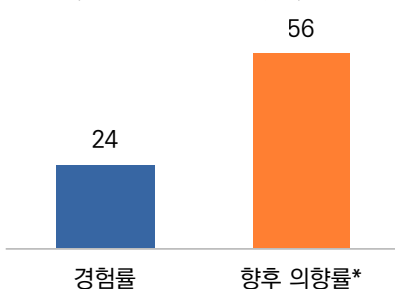
*향후 의향에 대한 질문은 4점 척도임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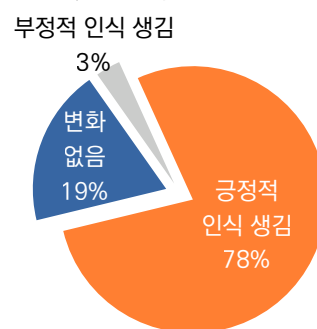
단기 선교 경험한 교인 10명 중 8명, 선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 생겨!

- 교인에게 단기선교 또는 비전트립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4명 중 1명(24%) 정도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의향률은 56%로 나타났다. 단기선교/비전트립을 경험한 교인에게 선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본 결과 78%가 선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응답해 교인의 선교 체험이 교회의 중요한 선교 방향성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 단기선교/비전트립 경험 및 의향 (교회 출석 기독교인, %)



[그림] 단기선교/비전트립 후 선교에 대한 인식 변화 (단기선교/비전트립 경험 교인)



*향후 의향에 대한 질문은 4점 척도임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저자 소개

대표저자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주)지앤컴리서치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갤럽 연구본부장과 주)글로벌리서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한국교회 코로나19 추적조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추적조사>, <한국인의 종교의식 및 신앙실태 추적조사> 등 주요 교단 및 기독교 단체와 다양한 기독교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1. 유반젤리즘 | 김영수 |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연구원, 종교사회학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영국 에섹스 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 석사, 영국 랑카스터 대학교에서 종교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연구원이었고, 한신대학교와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했다.

2. 멘탈 케어 커뮤니티 | 전우택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수

정신과 전문의로서 사회정신의학 영역에서 탈북자, 난민, 북한, 통일, 자살 예방 등을 연구하여 왔다. 한국자살 예방협회 이사장, 한국누가회 이사장,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3. 포텐셜 레이어티 | 신상목 | 국민일보 종교국 미션탐사부장

송실대학교(국어국문학)를 졸업하고 미국 커버넌트신학교에서 일반신학 석사 학위(M.A.)를 받았다. 월간 <빛과 소금> 기사를 거쳐 2007년부터 국민일보 기자로 일하고 있다. 종교부에서는 선교와 목회 영역을 주로 담당했다.

4. 오소프락시 | 김선일 | 웨스터민스터대학원대학교 실천신학교수

아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에서 석사(M.Div.)를 마치고 동대학원에서 회심과 전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사역연구소장과 예수소망교회 공동체 및 교육목사로 사역한 바 있다.

5. 패밀리 크리스천 | 정재영 |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종교사회학을 전공하였다. 한국교회 소그룹과 마을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6. 스피리추얼 Z세대 | 정연승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마케팅(유통)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유통학회 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회장, 서비스마케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7. 싱글 프렌들리 처치 | 심경미 | 우리고백교회 교육목사, (『싱글라이프』 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B.A), 영국 Trinity College in Bristol, (신학 Diploma), 이화여자대학원 여성학과 (M.A), 장로회신학대학원(M. Div)에서 공부했다. 관심 분야는 여성, 싱글이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비혼 여성에 관한 연구”를 썼다.

8. 시니어 미니스트리 | 손의성 | 배재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노인복지를 세부 전공으로 고려친화대학융합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기독교 사회복지실천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교회 노인사역 관련 단체들을 자문하고 있다.

9. 솔트리스 처치 | 백광훈 | 을지대학교 교목, 문화선교연구 원장

전북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 한 후 동대학원에서 기독교와 문화 분야를 전공하여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원장으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한 과제 및 한국교회가 지향하고 실천해야 할 문화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 장창수 | WEC국제선교동원 부대표

성균관대학에서 반도체 재료를 공부하고, 총신 신대원 졸업후 미국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에서 Missional Church 를 전공 했다. 분당우리교회 해외 선교부와 미셔널처치를 담당하며 청강문화산업대학 겸임 교수로 재직했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1. 기획 (2024.01.10.~)

- 주제 선정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T구성
- 총 70여개의 예비 주제 후보 취합

2. 10개 주제 및 저자 선정 (~2024.02.)

- 최종 10개의 주제 선정
- 각 주제별 저자 후보 섭외, 최종 필자 선정

3. 주제별 설문 기획 (~2024.04.)

- 각 주제별 저자와 함께 조사 기획 및 설문지 작성

4. 설문 조사 (2024.05.~06.)

- 설문 조사 실시 (담임목사, 기독교인, 일반국민, 고령교인, 싱글 크리스천, 해외선교사 6그룹, 총 6,700명 대상)

5. 설문 결과 분석 (2024.06.)

- 주제별 설문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저자별 설문 결과 설명 및 집필 방향성 논의

6. 집필 (~2024.08.)

- 원고 작성 가이드 마련
- 주제별 집필
- n차 피드백 후 출판사에 최종 원고 전달

7. 서적 출간 (2024.09.)

- 출판 디자인 및 출간
- 출판 기념회 (2024.09.30. 한국기독교회관)

